■ 민족문화연구 제86호(2020.02.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475-479.
http://doi.org/10.17948/kcs.2020..86.475

【해외한국학자료 소개】

『기인한상량(杞人閒商量)』 해제
—19세기 초 지식인이 바라본 조선의 지리지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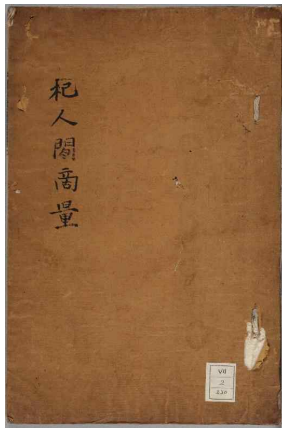
정대영(鄭大映)*

1. 정의

이 책은 지리지(地理志)에 대한 고찰과 개선방안을 논의한 책으로 1838년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자는 홍의호(洪義浩, 1758-1826)의 아들 가운데 한 명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현재 거의 전하지 않는 조선 시대 지리지에 대한 독자적인 저술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편저자 사항

본 책의 저자는 본문의 내용을 분석해 볼 때 담녕(澹寧) 홍의호의 아들로 여겨진다. 내용상 저자가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본문의 여러 인과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홍희조(洪羲祖, 1787-1864)가 이 책을 저술하였다고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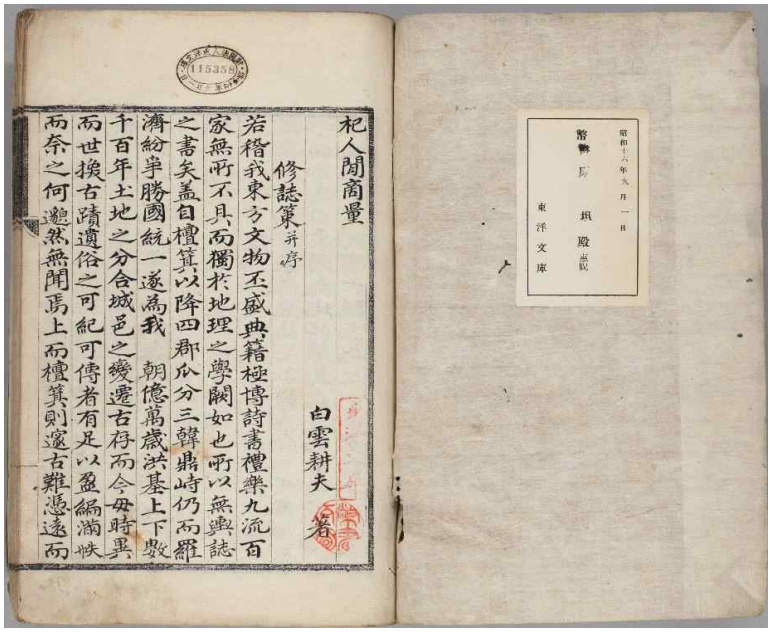
『기인한상량』 표지.

3. 구성 및 내용

『기인한상량(杞人閒商量)』은 필사본의 책으로 한

*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면에 10행 20자를 서술하는 형태로 45면에 걸쳐 지리지의 득실과 개선방안을 논의한 책이다. '기인한상량(杞人閒商量)'이라는 제목의 의미는 기우(杞憂)의 고사에서 등장하는 사람같이 걱정 많은 사람의 쓸모없는 생각을 의미하고 있다. 표지에는 동일한 제목이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선장(線裝)의 형태가 아닌 가철(假綴)로 제책(製冊)되어 있다. 본문은 목판의 광곽으로 인쇄한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필사(筆寫)를 하였으며 상흑어미(上黑魚尾)와 흑구(黑口)의 서지적 형태가 확인된다.



『기인한상량』 권수제면.

이 책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藏書閣)에 동일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두 책은 본문과 내용상 차이가 있으며 출입이 있는 편이다. 본 동양문고본이 45면인 것에 비해 장서각 소장본은 38면의 분량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을 대조해 보게 되면, 동양문고본이 최초의 원본에 더

가까운 형태이며 장서각본은 7면 즉 글자로는 1,400여 자가 생략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제작자에 대한 기록에도 장서각본에는 없는 '백운경부 저(白雲耕夫 著)'라는 기록이 본문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본문 가운데 홍의호의 지리지 제작에 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저자에 대한 추정을 가능케 하는 문장들이 확인되고 있다. 짐작건대 홍의호의 아들인 홍희종(洪羲宗) 또는 홍희조(洪羲祖)가 이 책을 저술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독특하게도 제목의 별칭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수지책(修誌策)'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이 별칭의 의미에 대해서는 본문의 끝에서 저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다. 즉, 새롭게 지리지를 편수하는 의견(修誌)에 대한 대책(策)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을 쓴 것이나, 결국 이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고 관심이 없을 것이므로 휴지가 될 운명의 책이라는 것이다. '수지(修誌)'라는 말은 '휴지(休紙)'와 발음이 같기에 언어유희를 해본 것이라는 그의 마지막 소회는 자조어린 한탄의 마음을 느끼게 한다.

본 책의 내용은 특별한 단락의 구분이나 소제목을 달지 않고 현대의 연구논문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크게 내용상으로 대별(大別)해 본다면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가장 오래된 지리지인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에서 시작하여 조선 시대 초기까지의 지리지 제작을 간단히 소개하며 각 지리지의 평론을 한 부분이다. 두 번째로는 지리지 제작에서의 한계점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특히 지명(地名)에 대한 관점이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지리지 제작이 서울에 있는 엘리트 지식인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지역의 본래 지명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순우리말인 지명을 한자로 옮기는 것의 한계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서수라(西水羅)의 지명이 중국의 서수호(西水滸), 서사하(西思河)에서 변천되었음을 고증하는 따위의 본문의 곳곳에서 저자의 언어학 지식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지리지가 제작되어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기존의 지리지 제작이 너무 많은 인원과 비용, 시간이 투입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독창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지리지가 제작되게 될 때 각 항목의 체제와 서술방식, 각 항목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이 책의 본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저자는 조선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제작 이후 근 300년 가까이 지리지의 제작에 신경을 쓰지 않아 왔는데, 성종조(成宗朝) 무술(戊戌)년인 1478년에서 300여 년이 지나 이번에 6회갑을 맞았으므로 슬픈 심정이 생겨 이 글을 쓴다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이 글은 1838년을 전후해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장서각본의 경우 이보다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장서각본은 단순한 전사본이 아니며, 특정한 목적에 의해 편집되어 내용의 가감(加減)이 이루어진 책으로 판단된다. 생략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구체적인 내용(예를 들어 '볼론(乭論)'이라는 지명의 어원을 설명하는 부분)이라든지 민감한 내용(예를 들어 지리지 제작을 위하여 서울의 관리를 파견하고 지방관에게 지리지 제작을 지시하는 부분, 지리지를 국가에서 제작하여 돈을 받고 시장에서 팔자는 내용 등)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서각본의 경우 이 당시 왕실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지리지 제작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본문의 내용을 다듬어 올린 왕실 열람용 서적으로 판단된다.

4. 자료 가치

1) 서지적 가치

이 책의 자료적 가치는 우선 기존까지 유일본이라고 알려졌던 장서각 소장 『기인한상량(杞人閒商量)』의 이본(異本)의 확인이라는 점에 있다. 장서각본 역시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와 같은 책이 제작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동양문고본이 확인되면서 장서각본에서 누락되었던 내용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고, 내용면에서 선본(善本)에 가까운 책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책

을 통해서 장서각본과 동양문고본의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장서각본의 필사가 더 후대에 되었으며, 일부 내용이 원본에 비해 누락되거나 의도적으로 편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 내용적 가치

이제까지 한국의 지리지나 읍지는 다수가 확인되었고 연구되었으나 지리지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나 의견을 개진한 저작 및 저술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책은 지리지 제작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를 담고 있다. 본문에 담긴 내용은 역사지리에 대한 연구, 특히 지리지에 대한 연구에 있어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선 시대 후기 지리지 인식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노상복, 『장서각도서한국본해제집 : 지리류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양보경, 「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硏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7.
정대영, 「『杞人閒商量』, 19세기 초 洪羲祖가 바라본 조선의 지리지 제작」, 『한국문화』 제72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467-508면.
정신문화연구원 편집부, 『정신문화연구』 제13권 4호, 정신문화연구원, 1990.